Weekly
FX Economist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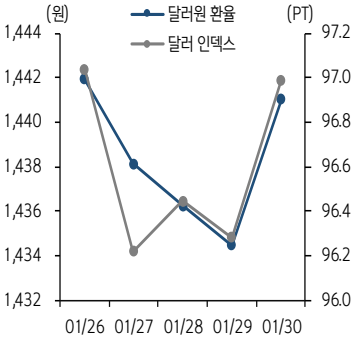
2026-02-02

환율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FX Talk & Insight : 금주 1,440~1,470원 전망

지난 한 주간 달러·원 환율이 극적으로 하락. 대외적으로 달러화가 광범위하고 강력하게 하락한 덕분. 선진국보다 신흥국 증시가, 미국 증시에서는 대형주보다 소형주가 선전하는 가운데, 금·은과 더불어 구리 등 금속 가격도 랠리. 고환율 우려는 다소 줄었지만 국내 구조적 수급 쏠림이 변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 현실. 상대적으로 매파라는 인식 강한 워시가 차기 연준 의장 지명되며 달러화 반등. 조기 총선 앞둔 일본의 여론 향배도 변수. 이란 지정학적 리스크도 복병으로 작용

외환시장



전망치	금주 예상 레인지	
	저점	고점
달러원	1440	1470
달러엔	154.0	157.0
유로달러	1.178	1.998

최근 달러-원 환율이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1,420원대로 떨어졌다. 물론 지난 연말에도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며 단기에 환율이 급락한 기억이 있지만, 계절적 특수성으로 수급이 얇았던 그때와 달리 지금은 다양한 국내외 요인들이 도와주며 환율의 하락을 지원하고 있는 듯하다. 트럼프 리스크로 지난 4월의 셀 아메리카 기억이 소환된 가운데 뉴욕 연준의 레이트 체크아웃 보도로 미일 공동 시장 개입 경계감이 커지며 엔화 가치가 급등하였다. 내부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관세 인상 발표에도 불구하고 타코 전략에 익숙해지며 충격은 제한적이었다. 오히려 로봇 기대감과 반도체 실적 호전 등으로 주가지수가 크게 오르며 환율 안정을 측면 지원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들은 보다 의미 있는 환율 하락을 위해서는 외환당국의 의지에 미국의 조력과 원화 자체의 매력도 향상이 더해져야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듯이 환율의 추세적인 하락을 끌고 가려면 국내외 경제와 시장의 동반 조력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환율 하락의 트리거가 된 엔화에 대한 미일 공조 개입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적지 않다. 베센트 장관의 부인도 있었지만 총선을 앞두고 있는 다카이치를 지원하기 위한 립 서비스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초대형 쓰나미로 미국과 일본이 공동 개입했던 지난 2011과 같은 상황과 분명 거리가 멀고 케리 트레이드 청산 위험도 가시적이지 않아 미국이 개입할 이유가 마땅치 않다. 의회 해산을 감수하면서도 미국 무기를 사주고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기특한 다카이치를 도와주려는 차원일 뿐, 굳이 실 개입을 한다면 BOJ의 단독에 그칠 수도 있을 것 같다.

한편 FOMC에서 시장 예상대로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지만, 인하 의지도 다소 물러난 인상이다.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이 가져오는 고용 없는 성장의 구도라면 미국의 경제성장과 자산시장 호조를 감안해 앞으로 금리인하에 신중을 기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여기에 지난 연준 이사 임기 동안 인플레 파이터 면모를 보인 워시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낙점되자 시장은 실망감과 우려감을 표명하는 듯하다. 하지만 누가 차기 의장이 되었더라도 트럼프에 대한 충성도와 금리인하 의지는 파월보다 높다는 점은 자명하다. 문제는 미국 대통령이 연준을 수시로 불러내며 통화정책에 극심하게 관여했던 1970년대의 후유증으로 1980년대 고물가와 고금리 처방을 초래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물가와 중앙은행 독립성을 두고 연준내 분열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당초 시장의 기대만큼 적극적인 인하가 단행되기 보다는 한동안 금리 경로의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빅 사이클로 진입하는 듯한 반도체의 1월 수출 호조가 숫자로 확인되고 총선에 올인할 다카이치 정부로 인해 원화 환율의 안정세를 기대할 수 있는 여력도 있다. 여기에 만일 트럼프 상호 관세의 위법성이 일부 인정될 경우 한국 관세 인상 우려를 희석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사법적인 영역은 트럼프가 지금까지 전세계를 대상으로 관세에 매긴 일부 법 조항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정학적 리스크의 대가로 비철금속과 귀금속 등을 중심으로 원자재가 오르며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여지도 있다. 그리고 엔화 역시 의회 해산 이후 강세를 보인 적은 이례적이다. 온 마을이 원화 강세에 발벗고 나서는지 시간을 두고 따져봐야 한다.

Economist 소재용
jyso@shinhan.com
02-2151-2638

Economist 백석현
seokhyun100@shinhan.com
02-2151-26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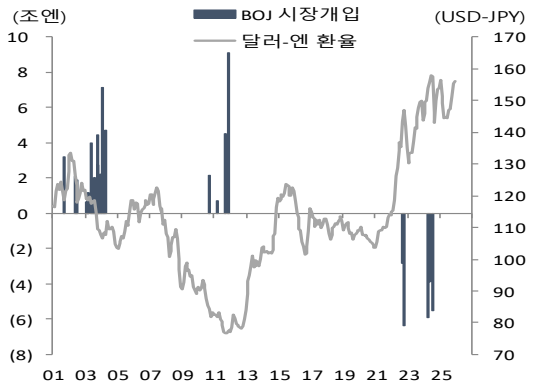
Weekly
FX Economist View
환율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림으로 해석하는 매크로 관전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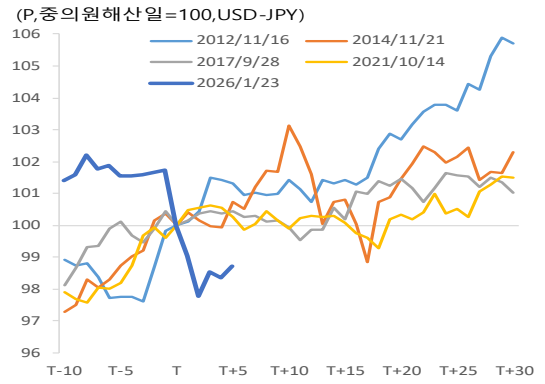
엔화 가치 떨어지자 미일 공조 개입 가능성이 거론되며 엔화 환율 급락. 다만 베센트 장관의 부인 등으로 미국의 엔화 시장 개입 가능성은 저하

다카이치 정부의 총선 승리를 위한 정치적 행동으로 해석 소지. 일상화된 의회 해산으로 엔화 환율 추세에 영향 제한적, 금번은 이례적인 강세

엔화 상승으로 높아진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



일본의 흔한 의회 해산, 과거 환율 영향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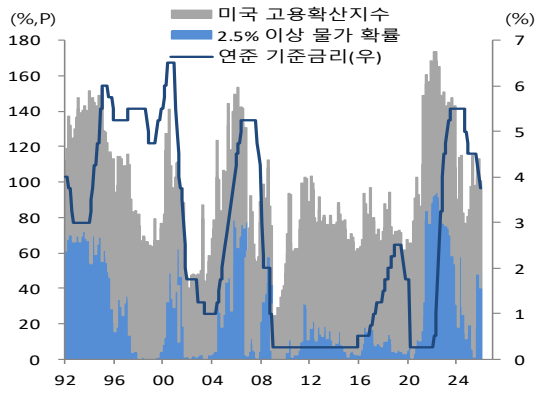


자료 : FRED, Bloomberg, Refinitive, 신한은행 S&T 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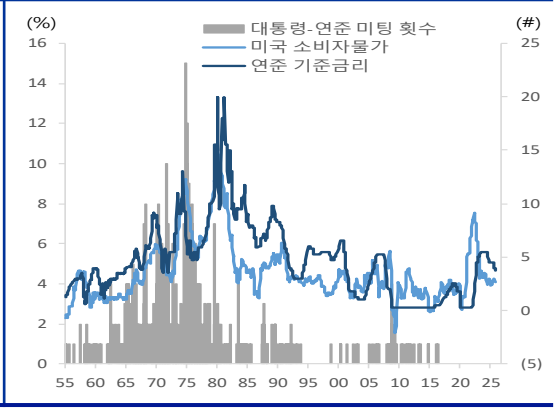
시장의 예상대로 연준은 기준금리 동결. 인하 주장이 親트럼프 2인에 그쳤고 물가와 고용에 대한 입장 중립적이어서 한동안 동결 이어질 듯

차기 의장으로 지명된 워시의 과거 행적으로 인해 매파 성향 우려. 파월보다 충성심이 높은 인사가 의장이 되며 독립성 두고 연준내 분열 예상

금리 조정 유인 떨어지며 동결 택한 FOMC



1970년대 독립성 훼손을 반복하려 하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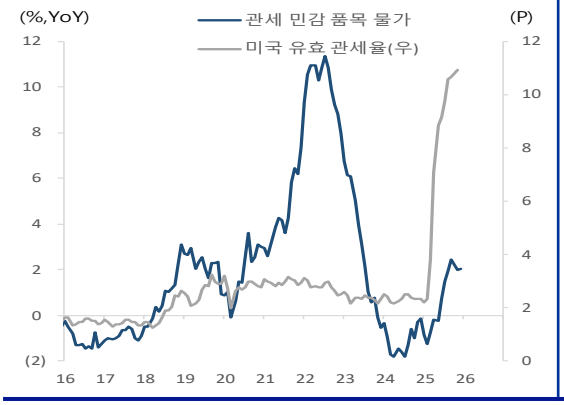


자료 : University of Maryland, Bloomberg, Refinitive, 신한은행 S&T 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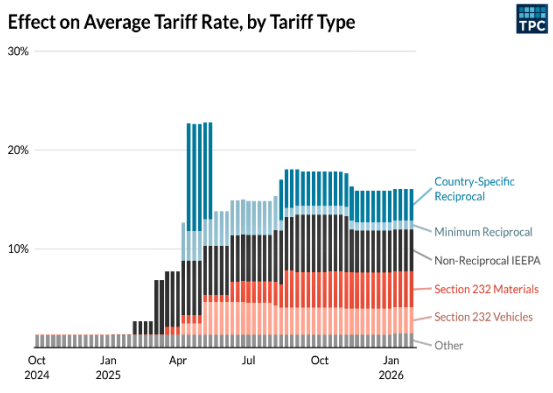
미국 물가와 고용 통해 트럼프 정책 및 기술발전 수위를 가늠할 듯. 비교적 물가 부담 제한적이나 관세의 순차적 반영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

연준 의장 지명 지나고 상호 관세 대법원 판결 가능성. 이미 무역 협상 체결, 반도체 등으로 우회로 선택 . 대체 법안 있어 소멸 가능성 낮아

급등 부담은 적지만 관세의 물가 여파 확인



다양한 법안 통해 관세 끌어 올린 트럼프



자료 : TPC, Bloomberg, Refinitive, 신한은행 S&T 센터

Weekly
FX Economist View
환율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금주 발표되는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발표 일정						
	국가	이벤트	기간	예상치	이전치	중요도
2-02-2026 10:45	CH	레이팅독 중국 제조업 PMI	Jan	50	50.1	92
2-03-2026 0:00	US	ISM 제조업지수	Jan	48.3	47.9	95
2-03-2026 0:00	US	ISM 구매물가지수	Jan	--	58.5	76
2-03-2026 8:00	SK	CPI (전년대비)	Jan	--	2.30%	95
2-03-2026 8:50	JN	본원통화 전년비	Jan	--	-9.80%	77
2-03-2026 12:30	AU	RBA 목표금리	3-Feb	--	3.60%	100
2-04-2026 0:00	US	구인이직보고서 구인건수	Dec	--	7146k	62
2-04-2026 6:00	SK	외환보유액	Jan	--	$428.05b	58
2-04-2026 10:45	CH	레이팅독 중국 서비스 PMI	Jan	--	52	75
2-04-2026 19:00	EC	CPI 예상 YoY	Jan P	--	1.90%	76
2-04-2026 22:15	US	ADP취업자 변동	Jan	45k	41k	93
2-05-2026 0:00	US	ISM 서비스 지수	Jan	53.3	54.4	83
2-05-2026 9:30	AU	무역수지	Dec	--	A$2936m	83
2-05-2026 21:00	UK	영란은행 기준금리	5-Feb	3.75%	3.75%	99
2-05-2026 22:15	EC	ECB 단기수신금리	5-Feb	--	2.00%	93
2-05-2026 22:15	EC	ECB 주요 재융자 금리	5-Feb	--	2.15%	98
2-06-2026 8:00	SK	BoP 경상수지	Dec	--	$12236.7m	74
2-06-2026 22:30	CA	실업률	Jan	--	6.80%	92
2-06-2026 22:30	US	비농업부분고용자수 변동	Jan	70k	50k	99
2-06-2026 22:30	US	실업률	Jan	4.40%	4.40%	89
2-07-2026 0:00	US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신뢰	Feb P	55	56.4	95
2/07/2026	CH	외환보유액	Jan	--	$3357.87b	71

자료 : Bloomberg, 신한은행 S&T센터
주 : 날짜 및 시간은 한국 기준/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중요도는 숫자가 높을수록 중요한 지표로 평가
US(미국), EC(유로존), UK(영국), GE(독일), JN(일본), CH(중국), CA(캐나다), AU(호주), SK(대한민국)

서울 외환시장

(단위 : 원)

구분	달러/원	위안/원
시가	1,432.0	206.1
고가	1,446.9	207.3
저가	1,430.5	206.0
종가[1)]	1,439.5	207.2
전일비	13.2	1.9
평균환율	1,436.7	206.8
NDF(1M)	1,449.3	
거래량	206(억불)	277(억위안)

1) 서울외환시장 3시 30분 종가

주요 통화 환율

통화	환율	전일비
USD/KRW	1,441.05	4.80
JPY/KRW	935.26	-2.64
EUR/KRW	1,717.04	2.68
GBP/KRW	1,977.17	-3.39
AUD/KRW	1,005.77	-5.19
CAD/KRW	1,060.86	-2.35
USD/JPY	154.78	1.67
EUR/USD	1.1851	-0.0120

금리 장외파생상품 (원화)

(단위 : %)

만기	IRS	전일비	CRS[2)]	전일비
1Y	2.868	0.027	2.355	0.04
2Y	3.092	0.044	2.640	0.09
3Y	3.235	0.052	2.795	0.08
4Y	3.320	0.057	2.860	0.07
5Y	3.381	0.054	2.930	0.06
7Y	3.462	0.052	2.945	0.05
10Y	3.529	0.048	2.920	0.05

2) 3개월 주기로 무위험지표 복리평균금리(Compounded SOFR) 3개월물과 교환되는 원화 고정금리

기준 금리 및 채권금리 (원화)

구분	종가	전일비
CD 91일물	2.73	+0.01
통안 1년	2.64	+0.02
통안 2년	3.01	+0.03
국고채 3년	3.14	+0.04
국고채 5년	3.44	+0.04
국고채 10년	3.61	+0.05
국고채선물(3년)	104.94	0.00

단기 FX Swap Point (원화)

(단위 : 전)

만기	SWAP Point	전일비	Implied CRS
1M	-155	-6.00	2.27%
3M	-475	0.00	2.30%
6M	-930	10.00	2.34%
1Y	-1,640	-10.00	2.36%

금리 장외파생상품 (미국)

(단위 : %)

만기	국채	전일비	IRS[3)]	전일비
1Y	3.46	-0.036	3.47	-0.037
2Y	3.52	-0.049	3.36	-0.050
3Y	3.59	-0.050	3.39	-0.053
5Y	3.79	-0.040	3.52	-0.048
10Y	4.24	-0.008	3.85	-0.026

3) 1년 주기로 무위험지표 복리평균금리(Compounded SOFR) 1년물과 교환되는 달러 고정금리

주요 증시

증시	종가	전일비	
KOSPI	5,224.36	+3.11	+0.06%
미국 DOW	48,892.47	-179.09	-0.36%
중국 상해종합	4,117.95	-40.04	-0.96%
일본 NIKKEI 225	53,322.85	-52.75	-0.10%
영국 FTSE 100	10,223.54	+51.78	+0.51%

기타

종목	종가	전일비
WTI (선물)	65.21	-0.21
금 (선물)	4,713.90	-604.50
3M TERM SOFR	3.66	-0.00
3M EURIBOR	2.03	+0.01
KOR 5Y CDS	21.50	+0.13

· 본 자료는 자료 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고객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매매는 본인의 책임하에 진행되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행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행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 될 수 없습니다.